

명예의 대가

단편 소설 (작가: JONATHAN MABERRY)

작가
JONATHAN MABERRY

작화
SURFSIDE 3D

선임 디렉터,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VENECIA DURAN

선임 매니저, 집필 및 출간
MATTHEW COHAN

편집 감독
CHLOE FRABONI

선임 편집자
MEGAN WALKER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SOPHIE ERB

선임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프로덕션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게임 팀 자문
RAPHAEL AHAD, JOSHUA GREENFIELD, PHILLIP HILLENBRAND, JR., EVAN LEE,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명예의 대가

"다들 불 가에 앉아라." 디마르 브랜트가 반원형으로 둘러놓은 통나무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우르릉거렸지만, 무성한 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파홀드 성채의 기사대장 브랜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흔들리는 불빛이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흉터의 윤곽을 따라 흘렀다. "다들 전투와 승리의 노래는 들어봤겠지." 그는 운을 뗐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뒤편의 진실을 다 안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물터의 역사에서 너희가 아는 건 한 줌에 불과하단다. 이렇게 불 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이야기라는 건 입을 떠나는 순간 달라지기 마련이지.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 위에서 천둥이 거인의 포효처럼 울부짖었다.

"결사단의 장로들을 만나거든...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눈여겨봐라. 시간과 칼날에 베인 것들 모두를. 그게 바로 우리 동족의 여정과 우리가 싸워낸 전투, 견뎌낸 역경, 그리고 감수했던 위험들이 그려 놓





은 지도니까."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동족을 보호하고 너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결사단은 끔찍한 위험을 짊어졌단다. 검은바위 첨탑 공성전 이후 달아나는 호드의 잔당을 격퇴하기 위해 스톰윈드나 얼라이언스와의 관계도 단절했었지? 그런 결정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긴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때로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옳지 않은 때도 있어.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다 보면, 미래의 결과를 놓치는 일도 있지. 우리 또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달아나는 호드가 전 세계에 역병처럼 퍼지지 않도록 움직인 거란다."

그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자신에게 물어보렴... 우리가 한 맹세가 마을 주민이나 무고한 농부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까? 얼라이언스의 존중과 신뢰가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누구일까? 아니, 우리는 *무엇일까*?"

"너희도 검은바위 첨탑 공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그때가 바로 많은 역사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단다. 그 전투에서 고귀한 로데론 얼라이언스는 오그림 둠해머가 이끄는 압도적인 오크 호드 세력과 맞서야 했지."

"둠해머는 진짜 무시무시했나요?" 아이가 물었다.

"파멸의 망치라는 이름처럼 흉포했지."

"그들은 왜 싸웠어요?"

"양측은 각자의 믿음 때문에 싸웠다. 그렇다는 건 양쪽 모두 자기네 대의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어딘가의 오크 전당에서는 오크의 장로 하나가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들려주고 있을 테지."

"그런데 진짜로 *왜* 싸운 거예요?" 어린 소녀가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싸울까? 힘을 위해서. 교역로를 위해서. 영토를 위해서." 브랜트가 말했다. "호드는 우리를 포위해서 *굶겨* 죽이고, 모든 걸 자기들이 차지하려 했다. 그들은 불타는 군단 악마들의 하수인으로서 아제로스를 침공했던 거야. 그리고 학살을 통해 빼앗을 수 있는 건 모두 자기들 차지라고 생각했지."

아이들은 부들부들 떨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자," 그는 말을 이었다. "둠해머가 안두인 로서를 쓰러뜨렸을 때, 보통은 바로 거기에서 전쟁이 끝났어야 했어. 실제로 수많은 얼라이언스 병사는 로서의 생명이 꺼져 가는 동안 각자의 용기도 사라져 가는 것을 느꼈단다."

그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입을 떡 벌린 아이들을 둘러봤다. 이야기를 듣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들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브랜트는 미소를 지었다.

"전쟁은 한 순간에 패배할 수도 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용의 주둥이에서도 승리를 가로챌 수 있는 법이지. 우리 삶과 같이, 전쟁이라는 것도 참 변덕스럽거든. 날씨만큼이나 금세 변하곤 하니까."

아이들은 바싹 다가앉았다. "*어떻게* 됐는데요?"

"군대는 위대한 영웅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병사들 사이에 영웅이 없는 것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지. 로서가 쓰러지고, 성기사 투랄리온이 일어섰다. 그는 로서의 부관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간절한 순간에 자기 안에서 모두를 이끌 힘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지혜를 찾을 수 있었지."

그리고 그는 은빛 성기사단의 투랄리온이 흔들리는 얼라이언스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신성한 힘을 끌어낸 과정을 설명했다. 힘을 주는 빛이 그의 안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것이 빛의 봉화가 되어 병사 하나하나의 가슴에 다시 용기의 불을 피웠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일어섰다.

"그들은 떨리는 손에서 떨어진 무기를 다시 주워 들었고," 브랜트는 말을 이었다. "한 손에는 로서의 깨진 검을, 또 다른 손에는 커다란 망치를 든 투랄리온의 뒤를 따랐다."

"방패도 없이요?" 한 아이가 외쳤다.

"하! 그래. 오그림 둠해머가 로서를 해치기 전에 방패를 깨뜨려 버렸거든. 그런다고 그 성기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 얘들아, 그럴 수 *없었어*. 그 성기사는 군대와 천상을 향해 주군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 둠해머는 그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는 거대한 망치를 들어 공격했어. 투랄리온은 굳건히 버티고 서서 그 깨진 검으로 둠해머를 강타하고 무릎 꿇렸다."

"좋았어! 그분이 초록 괴물을 없애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아이가 외쳤지만, 브랜트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시켰다.


BLACKROCK
MOUNTAIN
TWILI
SHRO


KROL'DOK
STRONGHOLD
SUNNYGLADE
POWDERFUSE
POINT

"쉿. "우리 적을 조롱하지 마라. 그런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용기의 크기에 따라 우리 영광의 크기도 결정되는 법이지. 투랄리온은 오크 대족장을 기절시켰다. 그리고 성기사와 그의 동료들은 힘을 합쳐 오크들을 압도했지. 그들은 적을 물리쳤지만, 학살하지는 않았어. 대신 오크들과 둠해머를 모두 사슬로 묶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 호드는 악하다. 하지만 맹렬히 싸우는 전사들이기도 해. 그것만큼은 존중해 줘야 한다."

그는 서로에게 속삭이거나, 홀로 머릿속으로 이해의 씨앗을 곱씹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다.

"2차 대전쟁이 그렇게 끝난 건가요?" 말수가 적은 아이가 물었다.

"아니. 그 외에도 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때만큼 큰 규모도 있었다." 브랜트가 대답했다. "하지만 검은바위 첨탑 공성전이 결정적이었어. 거기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아마 전쟁 그 자체도 패배했을 거고, 이 세상도 많이 달라졌을 거다."

그는 뒤로 기대앉아 전쟁 그 자체에 대해 말했다. 전쟁을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세상에서는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많은 진실이 드러난단다. 로서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기 응답하지 않은 이들도 많았어. 그들은 공포 때문에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지. 그래서 그들 외의 응답한 기사들만이 말을 타고 나서 호드를 앞에 두고 전 세계를 막아선 방패가 되었던 거야."

그는 영토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많은 종족들에 대해 설명했다. 얼라이언스, 호드, 오우거 등등. 그리고 욕구는 악하지 않지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중에는 악한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탐욕스러운 종족들이 이용하는 수단은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도 하지."

"황혼의 망치단처럼요?" 그중 나이가 조금 많은 소년이 물었다.

"그래.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차지함으로써 기쁨을 느끼지. 햇살터 또한 그렇고, 그곳에 대한 기억은 마치 칼과 같단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활짝 펼쳤다.

"하지만 우린 여기... 파홀드 성채에 있어." 그는 외쳤다. "여기가 우리에게 안전한 고향이 되었고. 이곳의 성벽과 그 위의 병사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다."